

제목: "무엇을 기대하는가?"

말씀: 마태복음 11장 1-19절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과연 진짜 메시아이신지 질문했습니다. 그 때에 예수님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바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인지 또한 진짜 생명이고 천국인지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확실하게 답해 주십니다. 싸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싸인 입니까?

- 1) _____이 싸인입니다.
- 2) _____이 싸인입니다.
- 3) 예수님의 _____가 하나님 사랑의 싸인입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뉴저지)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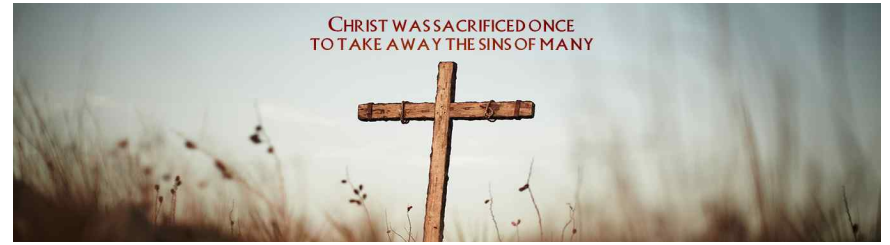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Brand New Heart to God" (2 Corinthians 5: 17)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마태복음 11장 1-19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Matthew 11: 1-19 신약 16 페이지 President
- 말씀 "무엇을 기대하는가?"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beautiful answer to our question Rev. Kim
- 특별찬양 김성정 전도사
Special Praise Pastor Faith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손 소독제 Hand sanitizer)

하루 종일 손 소독제(Hand sanitizer)를 사용하다 보니 결국 손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손바닥 껍질이 얇아지더니마는 여기저기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끝내 몇 군데가 갈라진 것이다. 큰 상처는 아니지만 신경이 많이 쓰여 지는 일이 되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받아 적는 동안 손님들이 내 손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상처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는 것이다. 잘 관리 하려고 하지만 손 소독제 앞에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집에 돌아오면 계속해서 약을 바르고, 기름을 발라서 상처 난 곳을 조치하지만 며칠의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많이 불편하다.

그 중 엄지손가락 끝이 갈라졌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상처지만 정말 불편했다. 가장 불편한 것은 옷을 입을 때에 단추를 끼우는 일이다. 친구 중에 오른팔이 없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생각이 많이 났다. 그 친구는 평생 불평하지 않고 단추를 끼우고 양복을 입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불편은 펜을 들고 하루동일 받아 적기가 어렵다. 펜을 힘 있게 잡을 때마다 아픈 곳에 새로운 아픔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장갑을 끼고 일하기로 했다. 그렇게 오른손에 장갑을 끼고 반나절을 일했다. 그리고 오후에 장갑을 벗고 손을 닦는 동안 깜짝 놀라게 되었다. 한 가지는 오른손이 몇 시간 동안 놀랍게 부드러워졌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왼손이 오른손에 비해서 마른 나무토막 같았다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손 관리를 하지 않았는지 증명이 되는 시간이었다.

그날 깊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내가 성도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주신 몸이고, 또한 사역을 하라고 주신 손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받들며 천국을 준비하라고 주신 몸이라는 사실이다. 그 생각과 아울러 돌아보니 내가 나의 몸을 잘 관리한 적이 별로 없었다. 건강은 그저 따라오고, 근육은 늘 새로워진다는 착가 때문이었다. 나 스스로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다. 몸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나의 건강을 챙겨가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 4장 21-22절)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라고 하신다. 그 말씀대로 살면 육체의 건강도 따라 온다고 약속하셨다.

터진 피부를 위하여 계속해서 핸드크림을 바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온 몸에 두르고 살아가면 어떠한 외부의 공격과 인생의 찬바람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고 진리인데 다른 곳에서 인생의 성공을 찾았으니 여기저기가 터지고 상처가 나서 아프고 절룩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나의 육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늘 두르고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있을 때에 모든 것을 이기며 믿음의 갈 길을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 그 길만이 여기저기 터지지 않고 살 생명의 길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 기도의 삶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기 위하여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열심히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미국과 한국의 안정을 위하여

Deep Roots Church: 교회 이전 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 Covid-19 에서의 온 가족 안전
Silk Wave 선교회: 선교 사역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2월호가 도착했습니다. 한 권씩 가지고 가셔서 말씀 묵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 2월의 행사

재의 수요일 (사순절 시작) 2월 17일(수)

6. 주일예배 시 (방역)

- 1) 교회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2) 되도록 손으로 이곳저곳을 만지지 않습니다.
- 3) 서로 6 피트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합니다.
- 4) 들어오고 나갈 때에 이름과 시간을 출석 종이에 적습니다.
- 5) 인사도 서로 거리를 두고 합니다.
- 6) 화장실은 예배당 옆에 있는 두 개의 화장실만을 사용합니다.
- 7) 찬양/찬송을 소리 내어 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찬양합니다.
- 8) 음식을 나누는 친교는 없으나 예배 전과 후에 대화는 가능합니다.
- 9) 하지만 예배 시 “아멘”은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